

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

- 범정부 총력 대응을 통해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)는 오늘(28일) 09시, 폭염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*했다.

* 참석 : 국조실, 교육·국방·행안·문체·농식품·산업·복지·환경·고용·국토·해수부, 경찰·소방·농진·질병·기상청, 17개 시도

○ 기상청에 따르면,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, 최고체감온도 35℃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이에, 정부는 지난 25일(금) 14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,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.

□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,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.

○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하고,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.

○ 독거노인, 쪽방촌 주민,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 강화하고, 냉방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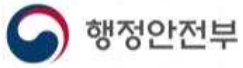
○ 농업인과 야외근로자에게는 낮 시간대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,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지원을 확대한다.

○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상안전 사고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.

-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,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한다.
 - 또한, 재난방송·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온열질환 대처 요령을 적극 안내한다.
-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“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상황에 대응할 것”이라며,
-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,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진희 (044-205-6360)
		담당자	사무관	전혜숙 (044-205-6364)





폭염, 6대 행동요령

1




폭염특보

본격적인
무더위

폭염경보 35℃
폭염주의보 33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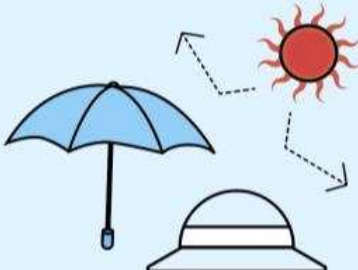
무더위 기상상황 확인

2




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

3




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

4

※ 실내온도 26~28℃ 유지



무더위 쉼터

무더위 시 시원한 장소 휴식

5



충분한 수분섭취

6



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